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기제시동기 및 자기제시기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강 진 화

자기제시동기 및 자기제시기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교

심 리 학 과

강 진 화

# 인 준 서

강진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불안 관한 자기제시이론의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효능감)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각각 사회불안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 중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을 포함한 총 308명의 성인 남녀로, 연구방법은 지필 설문형태가 아닌 웹 설문형태로 이루어졌다. 사회불안의 측정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와 사회공포증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제시동기 척도, 자기제시기대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자의식의 측정에는 자의식 척도와 점측경계진단검사의 하위 척도인 자의식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의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 및 분석에는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자의식은 모두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제시기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는 사회불안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자기제시기대 역시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데 자의식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들을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접근 ..... 6
2. 자기제시모델 ..... 8
  - 2-1. 자기제시동기 ..... 9
  - 2-2. 자기제시기대(효능감) ..... 10
3. 자의식 ..... 13
  - 3-1. 사적 자의식 ..... 14
  - 3-2. 공적 자의식 ..... 15
4. 자의식과 사회불안 ..... 17
5. 자의식과 자기제시동기 ..... 21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방법 ..... 23
2. 측정도구 ..... 23
3. 자료의 분석 ..... 26

####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 27
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 29
3.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32
4.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33
5. 자의식의 매개효과 ..... 35
  - 5-1.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 35
  - 5-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 36

####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차

<표1>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표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결과 .....	48
<표3>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의식의 상관관계 .....	49
<표4>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 대의 차이의 회귀분석 결과 .....	52
<표5> 자기제시기대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차이의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	54
<표6>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	57
<표7> Sobel 검증 결과 .....	60

## 그림 목차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	16
<그림 2> Sobel 검증 방법 .....	5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안’이라는 정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 중의 하나로,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응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황 또는 수행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큰 심리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수줍음(shyness), 대인공포, 수행불안, 사회적 위축, 대인 거부 공포, 수치심(shameness), 당혹감(embarrassment) 등은 모두 사회불안 또는 사회불안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현재의 공식적인 정신의학 진단체계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 사회적 관계에 집중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사회불안 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또는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으로 명명하고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5).

사회 불안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다른 불안 장애에 비해 비교적 관심을 덜 받아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에 대한 연구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 또는 사회공포증의 원인으로 특히 인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a, 1995b; Rapee & Heimberg, 1997).

그 중 대표적인 자기평가 모델(Clark & Arkowitz, 1975), 자기제시 모델(Shlender & Leary, 1982), 인지적 모델(Beck & Emery, 1985) 등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부적응적 귀인양식,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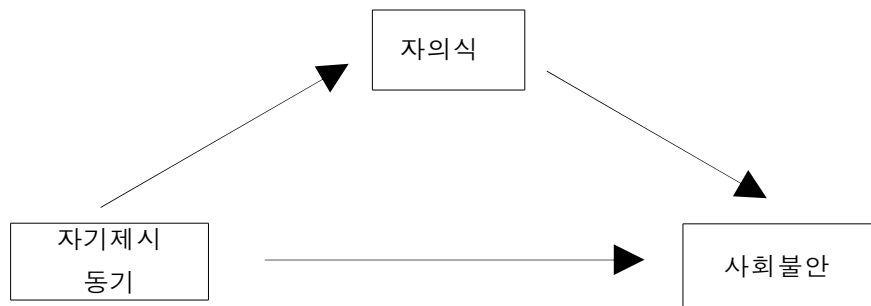
이 중에서도 자기제시 모델(self-presentation model)은 대인관계 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자기제시 이론은 동기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본 이론에서는 사회불안을 자신이 기대하는 인상을 타인들에게 주고 싶다는 욕구(자기제시 동기)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적인 평가(자기제시 기대)라는 두 요인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즉, 자기제시 동기는 높으나 자기제시는 낮을 경우 사회불안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는 자존감, 자기평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의식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불안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와 그러한 욕구에 대한 주관적 기대수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 및 자기제시 기대와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자기제시 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의식이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주는 필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필터의 역할은 ‘선택’과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 대상이 주관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정보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불안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지나친 자의식 경향, 즉 자신의 어떤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편향 또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5)

이와 관련하여 자의식이나 자기초점화 된 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Bruch, Hamer & Heimberg, 1995; Buss, 1980; Clark & Wells, 1995; Crozier & Russell, 1992; Edelmann, 1985; Hope & Heimberg, 1988; Nilly & Jennifer, 2002; Wells & Papagerogiou, 1988, Woody, Chambless & Glass, 1997; 김지혜, 안창일, 1991).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자의식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공격 자의식이 사적 자의식에 비해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김지혜, 안창일(1991)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경험자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특징인 인지적 편향이나 비효율성이 그 자체로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자의식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불안에 있어서 자기제시 동기 및 자기제시 기대(효능감)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기제시 요소 중 하나인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자기제시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가 사회불안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인지적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관련된 자기제시 동기의 영향을 받은 후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 매개모형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자기제시 동기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연구문제1.** 자기제시동기 및 자기제시기대(효능감),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SPM-SPE]), 자의식, 사회불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자기제시동기는 자의식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2.**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효능감),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가설3-1.** 자의식은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접근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 따르면 사회불안 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사회불안(social anxiety)',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이란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지만 회피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에 사회불안이라 하고, 회피행동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다(Neal & Edelman, 2003). 다른 견해는 양적인 구분으로서, 정도가 약한 경우에 사회불안이라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다(Leary & Kowalski, 1995b; Rapee, 1995).

사람들은 사회불안을 매우 높게 경험하는 상황을 회피할 것이고, 따라서 회피행동이 수반된 사회공포증은 정도가 심한 사회불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김남재, 2004)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양적인 차이로 보는 Leary와 Kowalski(1995b) 및

Rapee(1995)의 입장을 따라서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이란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것이다.

사회불안장애는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일생동안 그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만성적 경과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essler, Foster, Saunders, & Stang, 1995; Weiller, Bissert, Boye, Lepine, & Lecrubier, 1996),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면에서 더욱 고통스럽고, 보다 심각한 다른 정신병리를 유발하기 쉽다(Curran, 1977). 미국에서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정신과적 질병으로 밝혀졌으며(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en, & Kendler, 1994), 조사 간 다소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생 유병율은 3.5-7.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Lecrubier, Witten, Favarelli, Bobes, & Knapp, 2000; Lepine & Pelissolo, 2000). 사회불안의 원인과 유지에 있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모델들도 많이 제시되었는데, 자기평가 모델(Clark & Arkowitz, 1975), 자기제시 모델(Schlenker & Leary, 1982) 및 인지적모델(Beck & Emery, 1985) 등은 모두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과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이론적 입장들을 바탕으로 부적응적 자의식, 귀인양식,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자기제시 모델(self-presentation model)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보경, 2003).

## 2. 자기제시모델

자기제시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은 동기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기제시이론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자신이 기대하는 인상을 타인들에게 주고 싶다는 욕구(자기제시동기)와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확률(자기제시기대)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함수관계에 의해 유발된다. 즉 자기제시 동기는 높는데 자기제시 기대는 낮을 경우 사회불안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자기제시 이론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제시 동기는 자존감, 자기평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제시이론과 관련한 자기제시 모형(self-presentation model)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이 어떤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회불안 경험에 관련된 성향적 변인들과 상황적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다(Leary & Kowalski, 1995a).

즉, 사회불안의 선행 요인인 자기제시 동기에 대해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와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로 나누고,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성향적 변인들과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제시 기대에 대해서도 성향적 자기제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성향적 변인들과 상황적 자기제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들을 함께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김남재, 200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제시모형은 동기는 높는데 반해 자기제시

기대가 부정적일 경우에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Leary와 Kowalski(1995a)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가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여, 자기제시동기(SPM)와 자기제시기대(SPE) 및 사회불안(SA)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하였는데 ( $SA = f[(SPM) * (1 - SPE)]$ ), 이 가설은 자기제시기대가 아무리 낮더라도 자기제시동기가 높지 않으면 사회불안을 별로 경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 2-1. 자기제시 동기

Leary와 Kowalski는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상감찰(impression monitoring), 원하는 산출물(outcome)의 가치, 자기상과 자존심(self-esteem) 및 인정 추구(approval seeking)를 들었다. 인상감찰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Leary와 Kowalski에 의하면 인상감찰을 많이 할수록 자기제시 동기가 높아져서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인상감찰의 요인에는 인상감찰의 수준, 공적 자기의식 및 주의의 중심(center of attention)을 들었다.

자기제시동기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어 온 공적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서 자기초점적 주의에 속한다(Fenigstein, 1979).

이러한 공적 자기의식은 성향적인 공적 자기의식과 상태적인 공적 자기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성향적인 자기의식이 개인의 특질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반면에 상태적인 자기의식은 자기를 향한 주의(self-directed attention)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자기자각(self-awarenes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선행연구들에서는 성향적 자기의식과 특질 사회불안이 정적 상관을 보이며(Cheek & Buss, 1981; Monfreis & Kafer, 1994), 상태적 자기의식도 상태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보인다(Hope & Heimberg, 1988).

Leary 와 Kowalski가 언급한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에는 자기상과 자존심이 있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거나 상상된 지각 및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Schlenker & Weigold, 1992), 자기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개인의 정체감과 관련하여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제시 동기는 자기의 정체감에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측면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할 것이다( Leary & Kowalski, 1995a).

또한 인정요구가 높거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삶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에게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려는 동기를 더 높게 가질 것이므로, 사회불안을 더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Leary & Kowalski, 1995a).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atson & Friend, 1969)가 성향적 사회불안 척도와 상관됨을 보이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Goldfreid & Sobocinski, 1975; Leary & Kowalski, 1993; Montgomery & Hammerlich, 1982; Watson & Friend, 1969).

## 2-2.자기제시 기대(효능감)

자기제시 모형에서 자기제시 기대는 목적인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확률로서의 기대이다( Schlenker & Leary, 1982;Leary &

Kowalski, 1995a). 이 주관적 기대는 자기제시 효능감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기제시 기대는 대인관계적 부담(interpersonal load)에 대한 평가와 자기제시적 자원(self-presentational resource)에 대한 평가이다. 대인관계적 부담은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투여해야 하는 주의, 노력 및 의식적 사고의 정도를 말하고, 자기제시적 자원의 평가는 자기가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특성들(매력,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적 부담을 높게 평가하거나 자기제시적 자원을 낮게 평가할수록 자기제시 기대가 낮을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가정한다(Leary & Kowalski, 1995a).

대인관계적 부담을 높이는 한 요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목적인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다(Leary & Kowalski, 1995a). 이는 상대방이 통상적인 사회적 행동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증가된다.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며(Parrot, Sabini & Silver, 1998),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대인불안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y & Kowalski 1995a).

대인관계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은 상대방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ahone, E. M., & Heimberg, R. G., 1993)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제시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또한 자기제시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Leary & Kowalski, 1995a). 자기제시기대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은 자

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이다(Leary & Kowalski, 1995a). 주요한 자기제시적 자원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써 자신이 타인에게 주고자하는 인상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제시기대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불안을 덜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또는 그러한 특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더 낮은 자기제시적 자기제시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신체적 매력 및 사회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신체적 매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역시 낮은 자기제시기대의 경험으로 인해 높은 대인불안을 경험하게 된다(Leary & Kowalski, 1995a).

자기제시기대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기제시에 관한 높은 내적 기준(inner standard)으로써 자기제시에 대한 내적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에 만족할 만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ary & Kowalski, 1995a).

### 3. 자의식

자의식은 자기(self)에 주의의 초점을 두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으로써(Fesigstein등, 1975) Dual과 Wicklund는 사회적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객관적 자기지각이론에서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가 자기지각이라고 하였는데, 자의식은 이러한 자기지각의 능력이나 기질에 일정한 개인차가 있다고 가정한 개념이다(김영아,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9).

Fenigstein, Scheier 와 Buss(1975)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동기나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자기에 대한 주의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의식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자의식을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질로 파악하고 개인의 행동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하였다(이선주, 2008).

Fenigstein등은 이러한 개인차가 개인의 행동과 태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자의식을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내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하고,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다. 사회 불안은 주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대인관계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각 요인들은 때로는 서로 상처되는 측면도 내포되기 때문에 자의식의 총점보다는 소척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3-1. 사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이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추구하는 자기의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그들이 자신의 순간적인 정서 상태에 대해 더 반응적이며, 자신의 행동 경향이나, 정서, 감각 경험을 더 잘 자각하는 등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Scheier & Carver, 1980; Turner, Gilland, & Klein, 1981). 또한 판단시에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Scheier(1980)은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태도의 일관성도 높다고 하였는데, 그는 처벌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적은 후, 토론을 하게 될 상대방의 태도가 자신과 상반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는 많이 바꾸는 집단은 공적자의식이 높고 사적 자의식이 낮은 집단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적 자의식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으며, 공적 자의식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사적 자의식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높은 사적 자의식을 가진 개인은 그들의 태도를 더 잘 인식하나, 불일치를 더 잘 경험하기 쉽고(Gibbons & Wright, 1983; Scheier & Carver, 1980),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효과를 주어서 우울과 연관된다는 것이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Wood et al., 1990; Woody, 1996; Woody & Rodriguez, 2000). 또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Damsteegt & Christofferson, 1982; Smith, Ingram, & Roth, 1985), 불안 수준이 높으며(Hope & Heimberg, 1985)부정적인 경험 후에 알코올

섭취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Hull & Young, 1983). 이처럼 사적 자의식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 괴로움이나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Ingram, 1990).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사적 자의식 척도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적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반성(Self-Reflectiveness: SR)과 내적 상태 인식(Internal State Awareness: ISA)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urnkrant & Page, 1984). 그리고 확인된 하위 요인 중 SR은 수치심, 죄책감, 사회불안과, ISA는 자기 인식과 자존감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되는 것(Watson et al., 1994)으로 사적 자의식 척도 자체가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3-2.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표현 등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은 공적 자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매우 염려스러워 한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도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은주, 오경자, 1993)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동료집단에 대한 거부에 민감하고, 타인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 사회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사회적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하며, 사회성과 수줍음과도 관련되고(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을 예언하는데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자신과 반대이견을 가진 사람과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거나 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1980). 사적 자의식과는 달리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보는 자기의 인상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보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공적 자의식에 대해서는 사적 자의식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대인관계 및 대인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MMPI 하위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연구에서는 우울 및 사회적 소외감 등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재, 1997; 조아라, 김영미, 2000).

#### 4. 자의식과 사회불안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성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온 주제 중의 하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다. Fenigstein(1979)에 의하면 자의식은 자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질이며 계속적으로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개인의 기질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자기초점화주의라고 하고(Ingram, 1990), 자의식은 이러한 자기초점화주의 개념을 개인의 특성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자의식의 하위요인에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있는데, 사적 자의식은 주관적인 정서, 사고,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자각이고, 공적 자의식은 신체적 외모, 외현적인 행동, 정서 표현 같은 자기 자신의 공적 측면에 대한 자극을 의미한다.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정, 정현희, 2002).

Hope와 Heimberg는 임상적 사회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Monfries와 Kanfer(1994)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 의식이 사회불안의 여러 측정치 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김남재(1997)는 사회불안과 공적 자의식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4%의 변량을 설명한다는 결과를 얻었다(정미정, 정현희, 2002, 재인용). 이혜민(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불안은 공적 자의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5.2%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공적 자의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적당한 수준의 자의식은 정확한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자기발전을 동기화한다는 점에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의식의 수준과 지속성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실패에 대한 내적 귀인, 부정적 정서, 자존감 저하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Smith & Greenberg, 1981), 불안장애(Hope, Gansler, & Heimberg, 1989; Woody, 1996; Woody, Chambless, & Glass, 1997), 우울장애(Ingram, 1990; Pyszczynski & Greenberg, 1987), 알코올 남용(Carey, 1995; Hull, Young & Jourile, 1986), 정신분열증(Morrison & Haddock, 1997), 망상장애(Fenigstein & Vanable, 1992), 공황장애(Borden, Lowenbraun, Wolff, & Jones, 1993)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불안의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의 영향을 강조한 Clark와 Wells(1995)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 들어설 때 주의를 자기에게 전환해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모니터하고 관찰하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신체적인 증상, 감정, 자신에 대한 생각, 지난 사건들에 대한 기억 등 내부적 정보에만 근거해 이루어지고 외부의 실제 단서에는 주의가 감소되기 때문에 쉽게 왜곡된다고 하였다(김보경, 2003).

한편, 계슈탈트 치료 이론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불안장애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불안장애의 여러 하위 유형들이 각각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동일시하는 파국적 미래의 차이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제에 의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예들 들어, 공황장애 환자들은 신체적 위협을,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협을, 스트레스 후 외상장애는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 경험을 반복하는 위협을 과국적으로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김정규, 1995: Polster & Polster, 1973; Serok, 1995; Zinker, 1977).

이러한 미래의 위협을 과국적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은 게슈탈트 치료이론적으로 볼 때 미해결 과제(unfinished business) 및 접촉경계혼란(contact boundary disturbance)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미해결과제란 개인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나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들은 끊임없이 완결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새로운 상황을 지각할 때도 상황을 왜곡하여 지각하도록 만든다(김정규, 1995: Pearls, 1970; Polster & Polster, 1973; Yontef, 1993).

접촉경계혼란은 개인이 환경과의 적응과정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개인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응적 의미가 있으나 경직된 구조로 될 경우 병적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개인의 유기적 적응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unware)행동을 말한다.(김정규, 2000)

이러한 접촉경계혼란에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자의식이 있는데, 이 중 자의식이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상 관찰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간다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

야 한다든가, 혹은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앞을 지나가야 할 때 등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는 순간 자의식이 심해지는데 이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들과 매우 유사하다.

자의식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식 측정에 사용된 도구 및 실험 방법과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국내의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이 적응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문화권에 따른 자의식의 차등적 영향의 측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양은주,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의식은 자기제시 동기와 기대 및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사회불안과 자기제시 모델의 관계에서 자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6. 자의식과 자기제시동기

자기 자신을 지각과 사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의식은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매개체로써(Leary, 2001), 사실상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외적 내적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은 의식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자의식은 자기제시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기제시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타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줄 것인가에 관해 더 자주 집중하여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의식은 사회불안에 있어서 한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매개변수인 동시에 내재된 자신의 자기제시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승아, 오경자 2005).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인정을 바라는 욕구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적 편향이나 비효율성이 그 자체로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자의식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김지혜, 안창일(1991)의 연구에 의하면 사적, 공적 자의식이 모두 특성 상태불안과 상관이 높았고, 사회불안과는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안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이 불안 자체보다도 자의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라는 Matthew와 Wells(1998)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자기제시동기와 자의식 및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김남재(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사회적 인정욕구“(자기제시동기)와 대인불안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정욕구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과 관련된다고 보다는 자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의 검증을 통해 자기제시동기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불안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모형을 검증한 정승아, 오경자(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제시동기가 자기불일치와 자의식의 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방법

설문은 지필 형태가 아닌 웹-서베이(web-survey)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집단 상황에서 설문을 실시할 경우,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자의식이 집단의 성격 및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성인 남녀를 합하여 총 308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웹을 사용한 설문의 특성상, 미응답 문항이 있을 경우, 설문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누락이 없어 총 308명의 응답이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 도구

#####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s 등(1998)이 개발한 척도로,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겪는 불안(interaction anxiety)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8로 산출되었다.

## 2) 사회공포증 척도 (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s 등(1998)이 개발한 척도로,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scrutinizing anxiety),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90으로 산출되었다.

## 3) 자기제시동기 척도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

본 척도는 김남재(1998)가 Leary와 Kowalski(1995)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의 측정한다.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3,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5로 산출되었다.

## 4) 자기제시기대(효능감) 척도 (self-presentation expectancy scale; SPES)

조용래와 원호택(1997)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자기제시 기대(효능감)을 측정하기 적합한 지시문과 평정 방법으로 김남재(1999)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8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각각 11점 척도(0:목적인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할 것이다., 10:목적인 인상

을 주는데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상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7,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1로 산출되었다.

#### 5)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본 척도는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김남재(1997)이 번안한 것으로, 사적 자의식 10문항, 공적자의식 7문항, 사회불안 6문항을 포함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인이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하위 척도 중 사회불안 척도는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종속 변인인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 해당하는 문항(17)만을 사용하였다. 김보경(200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1, .77, .82(사적, 공적, 사회불안)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0으로 산출되었다.

#### 5) 접촉경계진단 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

본 척도는 김정규(2009)가 개발한 것으로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자의식 6개의 하위요인을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7, .80, .86, .77, .89, .85,(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자의식)로 산출되었다.

###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1.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2.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기제시 요소 중, 사회불안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을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효능감),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의 차이의 세 가지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대로 회귀분석을 하고, 매개변인을 투입한 수 기존 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해 주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VI.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남자 142명, 여자 162명으로 총 30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및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의 <표1>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나이는 20대(20세~29세)가 전체 비율의 6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30세~39세)가 29.9%, 40세 이상이 8.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학력 분포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전체 비율의 53.6%인 16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교 재학인 경우가 32.5%인 100명,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14%인 43명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명수(N)	빈도(%)
성별	남자	142	46.1
	여자	166	53.9
나이	20세~24세	89	28.9
	25세~29세	101	32.8
	30세~34세	60	19.5
	35세~39세	32	10.4
	40세 이상	26	8.4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	14
	대학교 재학	100	32.5
	대학교 졸업 이상	165	53.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결과가 다음의 <표2>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Matticks 등 1998)에 의해 측정된 사회불안(상호작용)과 사회공포증 척도(Matticks 등 1998)로 측정된 사회불안(사회 공포증)의 두 하위요인으로 분리한 것과 두 척도를 합산한 사회불안 수치를 각각 제시하였다. 자의식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의 척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접촉경계진단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의 자의식 측정 문항에 대해서는 자의식(접촉경계진단) 이라고 표기하였다.

<표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사회불안	308	112.82	19.53
사회불안(상호작용)	308	63.68	9.52
사회불안(사회공포증)	308	49.35	12.27
자기제기 동기(SPM)	308	94.11	16.57
자기제시기대(SPE)	308	39.00	8.59
[SPM-SPE]	308	55.11	18.73
자의식	308	61.06	7.14
접촉경계진단	308	216.19	42.06
자의식(접촉경계진단)	308	34.86	8.86

##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인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의식 등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의식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사회불안	1							
2.사회불안(상호작용)	.89**	1						
3.사회불안(사회공포증)	.94**	.70**	1					
4. 자기제시동기(SPM)	.35**	.30**	.30**	1				
5. 자기제시기대(SPE)	-.59**	-.62**	-.50**	-.01	1			
6. [SPM-SPE]	.58**	.54**	.50**	.89**	-.47**	1		
7. 자의식	.39**	.32**	.36**	.68**	.00	.61**	1	
8. 자의식(접촉경계진단)	.43**	.43**	.36**	.28**	-.29**	.37**	.21**	1

\*\* $p < .0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 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는 모두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5$  ,  $r= -.59$ ,  $r=.58$ ,  $p <0.01$ ). 각 변인 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제시동기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및 자의식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r=.89$ ,  $r=.68$ ,  $p <0.01$ ), 자기제시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r=-.01$ ,  $p <0.01$ ). 자기제시기대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r=-.47$ ,  $p <0.01$ ), 자의식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척도인 접촉경계진단 검사의 자의식(접촉경계혼란)척도는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43$  ,  $r= .28$ ,  $r=-.29$ ,  $r=.37$ ,  $p <.01$ ).

사용된 두 개의 자의식 척도와 다른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우선 Fenigsteine 등(1975)의 자의식 척도는 자기제시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r=.68$ ), 자기제시기대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김정규(2009)의 자의식 척도는 자기제시동기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자기제시기대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r=.27$ ,  $r=-.29$ ,  $p <.01$ ). 또한 각각의 자의식 척도 사이에는  $r=.21$ 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 3.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와 이 두 변인간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제시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전반적 모델은 유의했으며( $F=42.040$ ,  $p<.001$ ), 이 모델은 사회불안의 변량에 대해 1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자기제시기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제시기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관계였으며( $F=166.046$ ,  $p<.001$ ),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의 변량에 대해 35.2%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였으며( $F=154.559$ ,  $p<.001$ )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의 변량에 대해 33.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회귀계수들은 다음의 <표4>에 제시되었다.

<표 4>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차이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2$	adj- $R^2$	F
	자기제시동기(SPM)	.342***	.117	.114	40.647***
사회불안	자기제시기대(SPE)	-.593***	.352	.350	166.046***
	[SPM-SPE]	.579***	.336	.333	154.559***

\*\*\*  $p < .001$

#### 4.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이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 중 하나인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SPM-SPE])의 상관인 .89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진단한 결과 자기제시동기의 공차한계값은 .022, 분산팽창요인 값은 46.501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값이 .1 이하, 분산팽창 요인 값이 10이상 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 할 경우에는 두 변수 모두를 사용할 경우 유의미한 회귀식이 구해지지 않으므로, 회귀식의 기여율을 높이는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회귀식의 기여율을 검토한 결과, 설명변수를 자기제시기대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SPM-SPE])로 하였을 때 기여율이 더 높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설명변수를 자기제시기대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SPM-SPE])로 하고, 목적변수를 사회불안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5>와 같다.

**<표 5> 자기제시기대와 자기제시동기와자기제시기대의 차이 ([SPM-SPE])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2$	$adj-R^2$	$F$
사회불안	자기제시기대(SPE)	-.413	.352	.350	166.046***
	[SPM-SPE]	.387	.469	.465	134.538***

\*\*\*  $p < .001$

사회불안을 목적변인으로 하고 자기제시기대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과 자기제시기대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F=166.046$ ,  $p < .001$ ),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의 변량에 대해 35.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두 번째 설명변인인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SPM-SPE])를 투입한 결과,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는([SPM-SPE])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F=134.538$ ,  $p < .001$ ), 사회불안의 변량을 총 46.9% 설명함으로써 첫 번째 설명변수에 비해 11.7% 증가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 5. 자의식의 매개효과

자의식이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효과( $\beta$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권혜경, 2004; Baron & Kenny, 1986).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5-1.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세 변인의 상관관계(<표 3>)를 살펴본 결과,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자의식과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와 자의식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자기제시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회귀시켰다. 2단계에서는 자기제시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매개변인인 자의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기제시동기와 자의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시켰다.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자의식이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291,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자기제시동기는 자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681, p<.001$ ).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283, p<.001$ ),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보다( $\beta=.291, p<.001$ )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50, p<.05$ ). 그러므로 자의식은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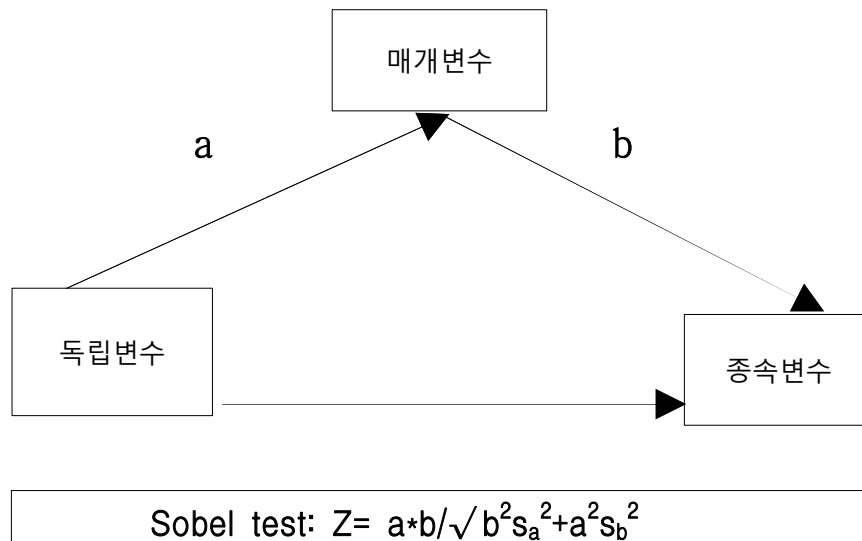
<표 6>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 효과

단계	변인	$\beta$	$R^2(\text{adj-}R^2)$	F
1. 독립 → 종속	자기제시동기 → 사회불안	.291***	.084(.081)	28.222***
2. 독립 → 매개	자기제시동기 → 자의식	.681***	.463(.462)	264.218***
3. 독립 → 종속	자기제시동기 → 사회불안	.150*	.148(.145)	53.172***
4. 매개 → 종속	자의식 → 사회불안	.283***	.160(.155)	29.074***

\*  $p < .05$ , \*\*\*  $p < .001$

## 5-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kinnon과 Dwyer(1993)와 Mackinnon외(1995)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추천되는 방법으로(Mackinnon, Lockwood, Hoffmann, West, & Sheets, 2002)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전달하는지 검증한다. Sobel 검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이용된 Aroian 검증과 Goodman검증이 Sobel 검증의 수정된 두 가지 방법들이다. 이 중 Goodman 검증은  $\sqrt{\quad}$  안의 값이 부적 추정치(negative estimate)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방법이 추천되며 본 연구에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obel 검정은 앞서 실시한 회귀 분석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검증하게 되며 검증방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obel 검증방법

검증은 매개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와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a, Sb), 그리고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값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Sobel 검정 결과, Z값은 2.69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Sobel 검증 결과

Sobel 검정 결과	
검정절차	$Z = .291 \cdot .774 / \sqrt{.774^2 \cdot .283^2 + .291^2 \cdot .018^2}$
Z 값	2.69
p 값	.003**

\*\*  $p < .01$

따라서 Sobel 검증을 통해,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이론인 자기제시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의 두 가지 요인인 자기제시동기(self-presentation motivation: SPM)와 자기제시기대(self-presentation expectancy: SPE) 및 두 요인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와 사회불안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둘째, 사회불안에 대한 각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제시동기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제시이론에서 가정한 대로 높은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제시동기가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예측된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남재(1998, 2004), 박주영(2004) 등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자기제시기대(효능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모형을 고찰한 연구인 김남재(2000)와 박주영(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되고 있는 바이다. 또한 자기제시기대는 자의식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의식(접촉경계진단검사)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는 서로 다른 성향적 상황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인지적 동기적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부정적 자기평가 또는 낮은 자기평가가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Cheek & Buss, 1981; Clark & Arkowits, 1975, Leary & Kowalsi, 1993) 자기제시이론에서는 부정적 자기평가 자체가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 자기제시기대가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는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결함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목적인상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불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의 차이와 사회불안은 자기제시동기나 자기제시기대(효능감)보다 훨씬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의 점수 차이의 절대값을 독립변수로, 사회불안을 종속변수로 각각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의 차이 역시,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불안의 자기제시모형을 검증한 박주영(2004)의 연구와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를 중심으로 한 완벽주의자들의 대인

불안에 대한 연구인 박소영(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기대(효능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제시동기가 높을 경우, 자기제시기대(효능감)가 높거나, 자기제시기대가 낮을 경우에는 자기제시동기가 높지 않으면 사회불안을 별로 경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 역시 자기제시모델의 기본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김은정(1994)이 번안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와 김정규(2009)가 개발한 접촉경계진단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의 하위요인 중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의식 요인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두 가지 자의식 모두는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제시동기와의 관계에서는 자의식이 접촉경계진단검사의 자의식에 비해 보다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자의식이라는 요인은 사회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상관의 정도가 사회불안에 비해 자기제시동기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제시동기가 자의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용된 두 개의 자의식 척도가 사회불안 및 자기제시동기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결과에 관해서는, 각 척도가 측정하는 자의식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Fenigstein 등(1975)의 자의식 척도의 총 27문항에는 공적자의식 7문항 사적자의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접촉경계진단 검사 10문항의 자의식 측정 문항은 대부분 공적자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대체로 공적자

의식이 우울 및 불안을 비롯한 특정한 병리와 관련된다는 것에는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으나, 사적 자의식에 관해서는 적응적 측면과 비적응적 측면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지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 째, 자기제시동기와 자시기대 및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관해 언급하자면, 세 개의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제시동기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두 변인 중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 변량의 35.2%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는 자기제시기대 변인만 투입했을 경우 보다 11.7% 증가된 설명량을 나타내어, 두 변인이 모두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여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의식은 자기제시동기와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즉 자기제시동기 뿐만 아니라 자의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검증한 정승아, 오경자(2005)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자기제시이론의 주요개념인

자기제시동기와 자의식 그리고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자의식에 관한 고려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서 환자 또는 내담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기제시동기 뿐만 아니라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또다른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다루는 현장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관해 언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표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60%를 차지하였고, 그 중 대학생의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본 연구의 결과를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구성도 임상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상집단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종단적인 방법에 의해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측정한 설문지 결과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은, 인과적 검증의 의미를 제한시키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제시동기나 자의식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적 조건 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연구나 종단적 방법에 의한 모형 검증 또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근거한 연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들 수 있는데, 매개변인인 자의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웹-서베이(web-survey)형태의 설문은 자의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자기제시동기나 자기제시기대 및 사회불안의 측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과 함께 이러한 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혜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남재 (1997).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의식과 인정추구 요구. **학생생활연구**, 3, 29-39.
- 김남재 (2000).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 고찰. **사회과학연구**, 6, 25-45.
- 김남재 (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공적 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아,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9). 자의식의 요인구조 및 정서적 적응상의 특성-사적 자의식의 2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69-78.
-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사적 자의식 구인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69-78.
- 김정규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 창조적 삶과 성장**, 서울: 학지사
- 김정규 (2000). 비파사나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합한 불안장애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475-503.
- 김지혜, 안창일 (1991). 자기초점화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 243-261
- 김향숙 (2000).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형진, 정한열 (2006). **한글 SPSS 기초에서 응용까지(개정판)**. 형설출판사
- 양은주, 오경자 (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이

-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13-125.
- 이선주 (2008). **사적 자의식과 정서 경험이 신경증적 경향이 미치는 경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민 (1999). **사회불안과 자의식 및 완벽주의간의 관계**.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 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 자기 불일치 이론의 이론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효과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MMPI 프로파일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19-3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orden, J. W., Lowenbroum, P. B., Wolff, P. L., & Jones, A. (1993). Self-focused attention in panic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413-425.
- Bruch, M. A., Hamer, R. J., & Heimberg, R. G. (1995). Shy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dditive or interactive 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3, 47-63.

- Burnkrant, R. E., & Page, Jr., T. J. (1984). A modification of the Fenigstein, Scheier & Buss Self-Consciousnes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629-637.
- Buss, A.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W.H.Freeman.
- Carey, K. B. (1995). Effects of alcohol intoxication on self - focused atten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48-252.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Crozier, W. R., & Russell, D. (1992). Blushing, embarrass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1*, 343-349.
- Curran, J. P. (1977). Skills training as a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heterosexual-social anxiety. *Psychological Bulletin, 89*, 140-157.
- Damsteegt, D. C. & Christoffersen, J. (1982). Objective self-awareness as a variable in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9*, 421-424.
- Duval, S., & Wicklund, R. A. (1971). Opinion change and performance facilitation as a result of objective self-awar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9-342*.
- Edelman, R. J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embarrassment: self-consciousness, self-monitoring and embarrassi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223-230.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87.
- Fenigstein, A., & Va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Gibbons, F. X., & Wright, R. A. (1983). Self-focused attention and reactions to conflicting standard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263-273.
- Goldfried, M., & Sobocinski, D. (1975).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emotional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04-510.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ope, D. A., & Heimberg, R. G. (198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a social phobia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Houston.
- Hope, D. A., & Heimberg, R. G. (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a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26-639.
- Hull, J. G., & Young, R. D. (1983).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uccess-failure as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in the male social drink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97-1110.
- Hull, J. G., & Young, R. D., & Jouriles, E. (1986). Application of the

- self-awareness model of alcohol consumption: Predicting patterns of use and ab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90-796.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Kessler, R. C., Foster, C. L., Saunders, W. B., & Stang, P. E. (1995). Social consequences of psychiatric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1026-1032.
- Kessler, R. C., McGongle, K., Zhao, S., Nelson, C., Hughes, M., Eschleman, S., Wittchen, H.U., & Kendler, K.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 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eary, M. R., Kowalski, R. M., & Bergen, D. J., (1988). Interpersonal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onfidence in first encount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68-77.
- Leary, M. R,& Kowalski, R. M. (1993). Th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Construc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136-146.
- Leary, M. R,&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6).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2001). Shyness and the self: attentional, motivational, and cognitive self-process in social anxiety and inhibition, In W. R. Crozier & L. E. Alde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 Lecrubier, Y., Witten, H. U., Faravelli, C., Bobes, J., Patel, A., Knapp, M. (2000). A European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15, 5-16.
- Lepine, J. P., & Pellisol, A. (2000). What takes social anxiety disorder seriously? *Depression and Anxiety*, 11, 87-92.
- Mahone, E. M., & Heimberg, R. G., (1993). Focus of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self-thought and perceived positive attributes of oth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209-224.
- Mattews, G., & Wells, A. (1998).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elf-consciousness and cognitive failure. *Cognition and Emotion*, 2, 123-132
- Monfries, M. M., & Kafer, N.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 447-454.
- Morrison, A. P., & Haddock, G. (1997). Self-focused attention in schizophrenic patients with and without auditory hallucinations and normal subject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Psychology*, 128, 447-454.
- Montgomery, R. L., & Hammerlie, F. M. (1982). Self-report and behavioral measures with heterosocially anxious subjects. *Psychological Reports*, 50, 1219-1222.
- Neal, J. A., & Edelma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61-786.
- Nilly, M. & Jennifer, W.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638-662.
- Parrot, W. G., Sabini, J., & Silver, M. (1988). The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interaction in embarrass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191-202.
- Peals, F. S., (1970). Four lectures. In: J. Fagan and I. Shepherd (Eds). *Gestalt Therapy Now*.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 Polster, E., & Polster, M., (1973). *Gestalt Therapy Integrated*. New York: Vintage Books.
- Pyszczynski, T., Holt, K., & Greenberg, J. (1987).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and expectancies for positive and negative future life event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51 - -357.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Scheier, M. F., & Carver, C. S. (1977). Self- 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25-636.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ve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 Scheier, M. F., & Carver, C. S. (1980). Private and public self attention,

- resistance to change, and dissonance re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25-636.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133-168.
- Serok, S., (1985). Implications of Gestalt Therapy with post traumatic patients. *The Gestalt Journal*, 8(1).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323-331.
- Smith, T. W., Ingram, R. E., & Roth, D. L. (1985).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Self-evaluation, affect, and life stress. *Motivation and Emotion*, 9, 381-389.
- Truner, R. G., Gililand, L., & Klein, H. M. (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182-19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atson, P. J., Hickman, S. E., Morris, R. J., Stutz, N. L., & Whiting, L. (1994). Complexity of self-consciousness subscales: Correlations of factors with self-esteem and dietary restrai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 761-774.
- Weiller, E., Bissierbe, J. C., Boyer, P., Lepine, J. P., & Lecrubier, Y. (1996). Social phobia in general health care: An unrecognized undertreated disabling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69-174.
- Wells, A., & Papageorgiou, C. (1998). Social phobia: effects of external

- attention on anxiety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117-129.
- Wood, J. V., Saltzberg, J. A., & Goldsamt, L. A. (1990). Does affect induce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9-908.
- Woody, S. R. (1996). Effects of focus of attention on anxiety levels and social performance of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61-69.
- Woody, S. R., Chambless, D. L., & Glass, C. R. (1997). Self-focused attention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117-129.
- Woody, S. R., & Rodriguez, B. F. (2000).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in phobics and normal contro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473-488.

## ABSTRACT

The effect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self-presentation expectancy in social anxiety:  
Test of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Jin-Hwa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self-presentation model on social anxiety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8 adults which was available internet because of the method of research was web-based survey. For assessing social anxie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and social phobia scale(SPS) were used.

Other scales were: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SPMS), self-presentation expectancy scale(SPES), Fenigstein's self-consciousness scale(SCS) and 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CBD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frequency,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16.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the gap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self-consciousness. Seco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the gap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self-presentation expectancy can predict on social anxiety significantly. Thir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variabl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social anxiety.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 부 록

부록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부록 2. 사회 공포증 척도

부록 3. 자기제시 동기 척도

부록 4. 자기제시 기대(효능감) 척도

부록 5. 자의식 척도

부록 6. 접촉경계진단 척도

**부록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이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5.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6.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7.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8.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9.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0.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해 낸다.					
11.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12.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하기 어렵다.					
13. 매력적인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4.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15.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16. 대화도중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다.					
17.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 봐 걱정하곤 한다.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된다.					
19.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할지 망설인다.					

**부록 2. 사회공포증 척도 (social phobia scale: SPS)**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이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다른 사람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 불안해진다.					
2.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3. 내 목소리와 내게 귀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되곤 한다.					
4. 길을 가고 있을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이 붉어질까봐 두렵다.					
6.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7.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8. 버스나 가차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앉아야 할 경우 긴장되곤 한다.					
9. 다른 사람에게 정신을 잃거나 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공포스럽다.					
10.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이 어렵다.					
11.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2.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13. 식판을 들고 번잡한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려면 긴장되곤 한다.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15.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6.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긴장된다.					
17. 줄을 서 있을 때, 나만 유난히 눈에 훑힐 것 같이 느껴진다.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긴장된다.					
19. 다른 사람을 앞에서 고개를 가로짓거나 끄덕거릴 것 같아 걱정된다.					
2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북하고 긴장된다.					

**부록 3. 자기제시 동기 척도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의 내용이 당신의 특징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상대방에게 맞추어 내 행동을 달리한다.					
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살핀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6.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7.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					
8. 나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재미있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9.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10. 나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11.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의 반응을 많이 의식한다.					
12.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를 마땅찮게 여기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내 행동을 바꾼다.					
13. 주변사람들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싶다.					
14. 일상적으로 나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15.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16.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관심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19. 나는 일상적으로 나의 외모를 많이 의식한다.				
2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의 기분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21. 모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행동하려고 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25. 상황에 어울리지 못하게 될까봐, 내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26. 윗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다.				
27.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언짢게 생각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한다.				

**부록4. 자기제시 기대(효능감) 척도 (self-presentation expectancy scale; SPES)**

다음은 일상적인 대인관계 상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한 인상(대체로 바람직한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아래 상황에 실제로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그 상황에서 애초에 목적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는데 얼마나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0에서 10까지의 숫자에 표시하십시오.)

목적한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할 것이다.										목적한 인상을 주는데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애인과 만나 데이트 하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2. 지도교수와 면담하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3.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과 만나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4. 친하지 않은 고교 동창생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5. 수업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6. 잘 모르는 집안 어른에게 전화를 거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7. 매력적인 이성을 소개받아 처음 만나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8.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부 록 5. 자의식 척도 (self-consciousness scale: SCS)**

다음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그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늘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신경을 쓴다.					
3.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의식/생각하지 않고 있다.					
4.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5.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					
6. 나는 종종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상을 한다.					
7. 나 자신에 대해 공공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의식/생각하고 있다.					
9. 나는 대체로 나의 내적인 감정/기분에 주의를 기울인다.					
10.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느낌을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일이 많다.					
11. 나는 끊임없이 나의 동기/마음을 검토해 본다.					
12. 집을 나서기 전에 복장과 용모가 어떤지 다시 한 번 살펴본다.					
13. 나는 가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신경을 쓴다.					
15. 나는 나 자신의 기분 변화를 잘 알아챈다.					
16.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7. 나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2, 8, 10, 12, 14, 16, 17: 공격자의식 문항(총 7문항)

1, 3, 4, 5, 6, 7, 9, 11, 13, 15: 사적 자의식 문항(총 10문항)

**부록 6. 접촉경계진단 검사 (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CBDS)**

다음은 당신의 생각이나 태도 혹은 행동방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누구나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아래의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바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2.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3. 나는 학창 시절에 아주 밀착된 친구가 있었다.						
4. 칭찬을 들으면 당황해서 얼른 딴 주제로 돌려버린다.						
5.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6.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다						
7. 불편한 상황이 되면 웃음으로 그 순간을 피해버린다.						
8.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9. 착하게 살아야 한다.						
10.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						
11.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12.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13. 가까운 사람이라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는 안 된다.						
14. 평소에 늘 몸이 긴장되어 있다.						
15.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 피해버린다.						
16.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17.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나에게서 떠나 갈 것이다.						
18. 나는 자주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19.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20. 가까운 사람의 청은 거절하기가 어렵다.						
21. 나도 모르게 자주 긴장하면서 숨을 멈춘다.						
22.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싫다.						
23.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온전히 만족스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24.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25. 불편한 감정을 내보인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끝날 것이다.						
26.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따라 하는 편이다.						
27. 나중에 당황하게 될까봐 하지 못하는 행동이 많다.						
28.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알아차릴까봐 두렵다.						
29.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30. 내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31. 혼자 있는 것은 내버려진 느낌이 든다.						
32. 나는 항상 생각이 많은 편이다.						
33. 대화를 할 때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 버린다.						
34.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다						
35. 남에게 욕들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36. 내가 나선다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37.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38. 나는 종종 죄책감이 들거나 짜증이 난다.						
39.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40. 어떤 일을 할 때, 온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몰두하기가 어렵다.						

41.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42.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다.						
43.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44.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날 챙겨줄 사람이 없다.						
45. 할 일이 있는데도, TV를 보거나 편전을 피운다.						
46. 나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47. 말은 책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48. 도움요청을 한다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49.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						
50.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할 때가 많다.						
51.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52.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53.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다.						
54.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도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55. 내 몸의 느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56.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당황해서 불안해진다.						
57.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58.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						
59.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60. 나는 열등감이 있다.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